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

왕과 왕비의 삶

소진형 교수





전체 목차

01	강의 개요		04
	• 강의 목표 • 주요 학습지점 • 강의 방법과 일정		
02	강의 목차		08
03	강의 교안		11
04	기타 학습요소		43
05	강의 전문(국문)		50

강의 개요

강의 목표

- 학습자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왕권 국가인 조선의 제도와 질서에 관하여 기초적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나아가 유교적 왕정국가에서 왕과 왕권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조선에서 왕과 왕비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특수하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학습지점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의 왕과 왕비의 삶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가와 왕의 관계를 역사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민주정, 공화정 등 다른 정치체제와 다른 왕정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특히 왕과 왕비에 관한 조선의 여러 제도와 질서, 삶을 파악할 수 있다.

강의 방법과 일정

본 강의는 총 10주차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의 강의는 주제별로 3~5개(차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별로 학습자가 해당 주차의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퀴즈 혹은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읽기자료 등 비영상 학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매주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활동을 마쳐야 한주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의 목차

01	왕이란 무엇인가?	1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2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3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4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1) 5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4)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2)
02	성군과 폭군: 정치체에서 요구하는 왕의 자질	1 동아시아 정치체제와 유교 2 법가의 국가와 왕에 대한 관점 3 법가의 성인, 그리고 왕 4 유교의 좋은 왕과 좋은 정치 5 유교에서 예와 왕의 관계
03	조선의 건국, 정치이념으로서 유교, 그리고 왕	1 유교국가로서의 조선 2 조선 건국의 의미 3 조선 왕의 의미 4 왕으로서 이성계의 정치적 정당성 5 강한 무력을 소유한 왕 vs 성리학적 군주
04	조선 왕의 즉위식과 그 의미	1 조선 왕의 즉위식 2 왕위의 계승 방법 1: 수선(受禪) 3 왕위의 계승 방법 2: 사위(嗣位) 4 왕위의 계승 방법 3: 반정(反正) 5 왕의 즉위 의식
05	조선 왕의 하루 일과	1 조선 왕의 권한과 그 범위 2 유교적 통치자로서 왕의 권한 3 왕의 일과(1): 문안 4 왕의 일과(2): 경연 5 왕의 일과(3): 조회와 인사



강의 목차

06	조선 왕비의 삶: 왕비의 역할과 의무	1 조선시대 왕비의 지위 2 왕비의 간택과 혼례(1) 3 왕비의 간택과 혼례(2) 4 왕실 여성들의 일상 5 왕비와 후궁의 관계
07	성리학적 군주의 정치 1: 인정과 조세수취	1 인정과 조세개혁: 세종의 난관(1) 2 인정과 조세개혁: 세종의 난관(2) 3 국가 방어를 위한 세금 수취의 어려움: 인정의 함정(1) 4 국가 방어를 위한 세금 수취의 어려움: 인정의 함정(2)
08	성리학적 군주의 정치 2: 성리학적 군주와 왕권의 의미	1 보이지 않는 왕의 의미 2 조선 후기 왕의 역할 3 성리학의 왕권이론 4 혼돈개벽유시 5 만천명월주인옹자서
09	왕비의 정치	1 수렴청정의 의미와 사례(1): 정희왕후 2 수렴청정의 사례(2): 문정왕후 3 수렴청정의 사례(3): 정순왕후 4 세자빈의 정치 5 왕비가 왕의 정치를 대신한다는 것의 의미
10	에필로그: 왕과 왕비의 정치	1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본 왕과 왕비의 삶 2 왕의 권한과 범위, 그리고 왕과 왕비의 결혼 3 왕의 정치와 왕비의 정치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소진형



강의 교안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소진형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 도입
-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해 질문하기
- 조선의 특징과 왕과 왕비

02.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 왕과 관련된 어휘들
- 왕에 관한 어휘

03.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
- 대통령과 왕의 비교
- 서양 정치체제의 분류와 동양의 군주정

04.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1)

- 전제군주와 여성군주
-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
- 계몽군주가 묘사되는 방식

05.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4)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2)

- 중국 황제의 그림
- 일본 천황과 쇼군의 모습
- 조선의 왕들, 그리고 동아시아 군주제의 지향점

1주차 | 학습목표

- 전근대 시기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의 왕과 왕비가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검토한다.
- 민주정, 공화정 등 다른 정치체제와 다른 왕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1주차 | 왕이란 무엇인가?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1주차 | 학습목표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학습목차

학습목표

- 조선의 왕과 왕비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상상하되, 왕정이라는 보편성과 조선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왕과 왕비에 접근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해 질문하기
- 조선의 특징과 왕과 왕비

도입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일월오봉도 병풍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 14세기 말~19세기 말까지 유지
- 한반도에 있었던 왕정국가

[출처01] 국립고궁박물관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공부한다는 의미

- 14세기 말부터 한반도라는 공간에 있었던
- 조선이라는 왕정국가의 최고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왕과 왕비에 대해 알아보는 것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해 질문하기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조선의 왕과 왕비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누리며 살았을까?

- → 아니다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군주제에서 왕과 왕비가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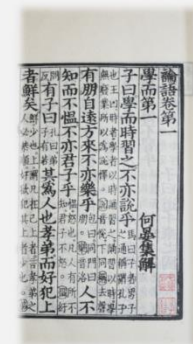
- 왕과 왕비: 공적 존재 → 공적 측면의 삶 중요
- 공적으로 노출되는 존재
-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됨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사회의 규범과 법을 잘 지키는 이상적 존재여야 했던 왕과 왕비

- 왕: 새벽 공부, 관료들과 함께 늦게까지 공부
- 왕비: 24시간 동안 예법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함
일생을 예법과 격식을 지켜야 했음



| 논어

[출처02]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조선의 왕과 왕비

- 왕과 왕비의 삶
 - = 조선이 지향하는 이상적 공동체 표상
- 유교의 성왕, 성왕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음

조선의 특징과 왕과 왕비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조선의 왕과 왕비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

- 조선의 정치체제를 알아야 함
- 성리학이 규정하는 좋은 왕과 왕의 의미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왕과 왕비의 공적 삶: 예(禮)를 통한 구체화

- 성리학적 정치체제에서 예(禮)는 규범과 도덕을
실천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짐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조선의 군주제를 이해하고 왕과 왕비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

- 모든 군주제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왕과 왕비의 특성을 이해하기
- 조선이라는 시공간의 특수성 속에서 왕과 왕비를 이해하기
→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 그러나 군주제의 형태와 지향은 시공간에 따라 다름

SOURCES



[출처01]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gogung/pgm/psgudMng/view.do?menuNo=800065&psgudSn=363310>
 [출처02] Wikip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alects_LunYu_Rongo2.JPG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1차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마무리

- 왕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왕과 왕비에 대한 규정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 도입
-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해 질문하기
- 조선의 특징과 왕과 왕비

02.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 왕과 관련된 어휘들
- 왕에 관한 어휘

03.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
- 대통령과 왕의 비교
- 서양 정치체제의 분류와 동양의 군주정

04.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1)

- 전제군주와 여성군주
-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
- 계몽군주가 묘사되는 방식

05.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4)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2)

- 중국 황제의 그림
- 일본 천황과 쇼군의 모습
- 조선의 왕들, 그리고 동아시아 군주제의 지향점

1주차 | 왕이란 무엇인가?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1주차 | 학습목표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학습목차

학습목표

- 왕과 관련된 단어,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왕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왕과 관련된 어휘들
- 왕에 관한 어휘



왕과 관련된 어휘들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먼저 검토해야 할 것들

- 왕과 관련된 어휘들을 통해 군주제 혹은 왕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왕정이 민주정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 동양과 서양의 왕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기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왕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는 것

- 군주제의 일반적인 속성, 다양한 군주제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조선의 왕과 왕비를 지나치게 일반화, 특수화하는 것을 막아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의 필요성

- 현대 사회와 군주제 사회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함
- 세습에 의해, 정치 수장되는 왕과 대통령이나 수상은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가짐
- 군주제의 제도와 규범이 현대사회에 다르다는 것을 이해
→ 왕과 왕비의 의미를 알 수 있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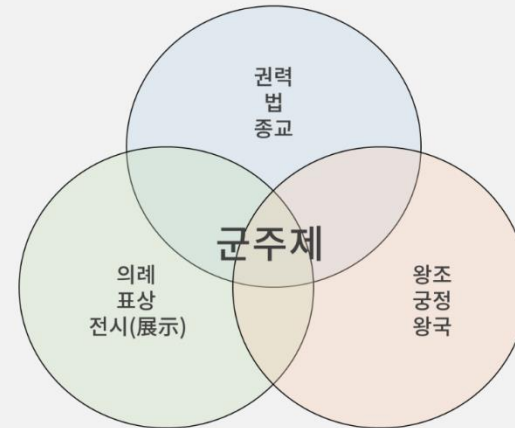
동서양 왕정 비교의 필요성

- 조선의 정치적 지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왕에 관한 어휘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유교 국가, 조선

- 종교적 색채가 약함
- 조선의 왕 = 유교 국가의 수장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왕과 관련된 어휘들로 볼 때 조선 왕의 특징은?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다양한 형태의 군주제

- 전제군주, 절대군주
- 입헌군주제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왕정(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치체제)

- 황제, 왕, 텐노, 쇼군, 아리키(ariki), 양디 페르투암(Yangdi-Pertuam), 사푸(Sapu), 오바(Oba), 파디샤(Padishah), 칼리프, 술탄, 킹, 모나크, 프린스, 칸, 파라오 등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마무리

- 왕과 관련된 어휘에서 보이는 보편성과 특수성
- 군주제란 동일한 명칭, 하지만 다양한 형태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 도입
-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해 질문하기
- 조선의 특징과 왕과 왕비

02.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 왕과 관련된 어휘들
- 왕에 관한 어휘

03.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
- 대통령과 왕의 비교
- 서양 정치체제의 분류와 동양의 군주정

04.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1)

- 전제군주와 여성군주
-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
- 계몽군주가 묘사되는 방식

05.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4)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2)

- 중국 황제의 그림
- 일본 천황과 쇼군의 모습
- 조선의 왕들, 그리고 동아시아 군주제의 지향점

1주차 | 왕이란 무엇인가?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1주차 | 학습목표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학습목차

학습목표

- 왕정과 민주정을 비교함으로써 왕정이 현재 정치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
- 대통령과 왕의 비교
- 서양 정치체제의 분류와 동양의 군주정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민주정과 군주정의 차이

	민주정	군주정
주권의 소재	국민	왕
권력	분립(입법, 행정, 사법)	일원
정치수장의 권력의 정당성	투표	세습, 종교, 의례 등
정치수장의 권력의 기간과 교체	헌법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투표에 의해 교체	즉위한 왕의 죽음
정치수장 역할	5국민의 대표, 국가의 대표, 정부의 수반	특정 종교의 신의 대리자 혹은 화신, 국가의 대표, 정부의 수반, 입법, 행정, 사법적 기능
정치수장과 법과의 관계	법의 수호자	법의 위에 존재, 법의 수호자, 제정자

대통령과 왕의 비교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조지 워싱턴(1796)



루이 16세(1788)



조지 3세(1762)

[출처01] Wikipedia

[출처02] Wikipedia

[출처03]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루이 16세(1788)



조지 3세(1762)

[출처02] Wikipedia

[출처03]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농부와 워싱턴



델리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

[출처04] Wikimedia
[출처05]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알프스를 넘고 있는
나폴레옹

[출처06]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농부와 워싱턴

[출처04] Wikimedia

서양 정치체제의 분류와 동양의 군주정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유럽인의 정치 분류 체계 기준 동양의 군주정

- 군주정 - 전제정/ 군주정-폭군정 사이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부의 여섯 가지 형태 (Aristotle's six forms of government)와 군주제

	1인	소수	다수
공적 이익을 지향	군주정(basileia)	귀족정(aristokratia)	금권정(timokratia) 혹은 제헌정(politeia)
통치자의 이익을 지향	참주정(tyrannis)	과두정(oligarchia)	민주정(demokrat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유럽인의 정치 분류 체계 기준 동양의 군주정

- 군주정 혹은 폭군정으로 분류됨
- 동양에서는 소수,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없음
- 대신 왕에 대한 평가가 존재함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4가지 정부 형태

공화정(Republic) 1) 민주정(Democracy) 2) 귀족정(Aristocracy)	군주정 (Monarchy)	전제정 (Despotic States)
---	-------------------	--------------------------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유럽인의 중국, 일본 정치 체제 평가

- 17세기: 긍정적으로 평가
- 18세기: '전제정'이라 규정 → 저평가
(예: 몽테스키외)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몽테스키외의 중국, 일본 정치 체제 평가

- 어떤 특정한 기후와 영역에 존재하는 한계를 가짐
→ 전제정을 가질 수 밖에 없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 대한 중국, 일본의 입장

- 19세기~20세기 초, 동아시아에 번역됨
- 일본, 중국의 번역자들: 몽테스키외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3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마무리

- 대통령과 왕의 차이
- 서양의 정치체제 분류에서 바라 본 동양의 군주제

SOURCES



[출처01]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Washington#/media/File:Gilbert_Stuart_Williamstown_Portrait_of_George_Washington.jpg

[출처02] Wikip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udvig_XVI_av_Frankrike_portr%C3%A4tterad_av_AF_Callet.jpg

[출처03]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7%80_3%EC%84%B8#/media/%ED%8C%8C%EC%9D%B C:Allan_Ramsay_-_King_George_III_in_coronation_robess_-_Google_Art_Project.jpg

[출처04]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4/Junius_Brutus_Stearns_-_George_Washington_as_Farmer_at_Mount_Vernon.jpg

[출처05]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Washington

SOURCES



[출처06]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D%8F%B4%EB%A0%88%EC%98%B9_%EB%B3%B4%EB%82%98%ED%8C%8C%EB%A5%B4%ED%8A%B8#/media/%ED%8C%8C%EC%9D%BC:David_-_Napoleon_crossing_the_Alps_-_Malmaison1.jpg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 도입
-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해 질문하기
- 조선의 특징과 왕과 왕비

02.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 왕과 관련된 어휘들
- 왕에 관한 어휘

03.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
- 대통령과 왕의 비교
- 서양 정치체제의 분류와 동양의 군주정

04.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1)

- 전제군주와 여성군주
-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
- 계몽군주가 묘사되는 방식

05.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4)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2)

- 중국 황제의 그림
- 일본 천황과 쇼군의 모습
- 조선의 왕들, 그리고 동아시아 군주제의 지향점

1주차 | 왕이란 무엇인가?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1)

1주차 | 학습목표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학습목차

학습목표

- 동양과 서양의 왕정을 비교함으로써 같은 왕정이지만 이념, 체제, 지향점에서 무엇이 다른 지 파악한다.

학습내용

- 전제군주와 여성군주
-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
- 계몽군주가 묘사되는 방식



전제군주와 여성군주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전제군주

- 모든 권력을 독점한 군주가 존재함
- 몽테스키외: 입헌군주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전제군주 vs 여성 군주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전제군주

-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군주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여성 군주

- 남성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등장



[출처01] Wikipedia

[출처02] Wikipedia

[출처03]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전제군주

- 통치자가 법률이나 반대세력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을 무제약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
→ 동아시아 군주제는 전제적인가?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동아시아의 전제정

- 통치자가 국가와 국민을 무제약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군주제 규정에 대한 아쉬움

- 군주제에 대한 기존 인식의 특징
 - 입헌군주제에 대비하여 설명
 - 19세기 공화정, 민주정과 대비하여 설명
- → 군주제를 과장, 부정적, 협소하게 평가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이집트 고왕국 제 1왕조 초대
파라오 나르메르

[출처04] 나무위키
[출처05] Wikipedia
[출처06] © 소진형



술탄 마흐메드 2세



진시황, 『삼재도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전제군주제 의미

- 군주의 강력한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 체제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여성군주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 거의 모든 군주제는 가부장적 제도
- 남성만이 실제 권력에 접근 가능
- 여성이 군주에 오르거나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
→ 예외적 상황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여성 군주들



[출처01] Wikipedia
[출처02] Wikipedia
[출처03] Wikipedia

| 엘리자베스 1세



| 예카테리나 2세



| 서태후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여성 군주들



[출처01] Wikipedia
[출처02] Wikipedia
[출처03] Wikipedia

| 엘리자베스 1세



| 예카테리나 2세



| 서태후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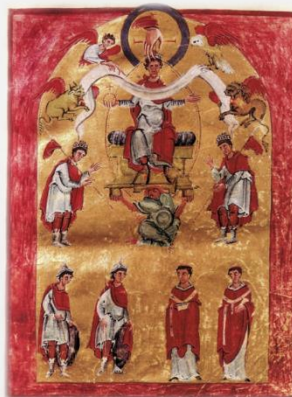
군주의 힘

- 현실 정치에서는 복잡한 권력 구조에 따름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의 의미



오토 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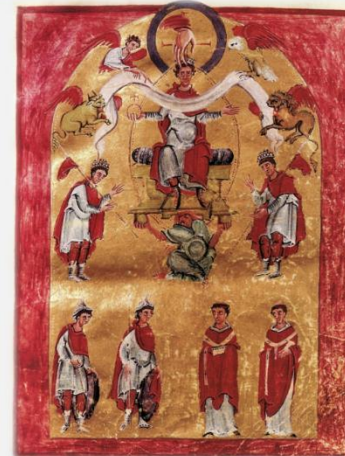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경배

[출처07] Wikipedia
[출처08] Wikipedia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오토 3세

[출처08]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경배

[출처05]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말을 탄 군주라는 표상



[출처09] Wikipedia



[출처10] Wikipedia

(좌) 펠리페 4세

(우) 펠리페 5세



계몽군주가 묘사되는 방식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4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마무리

-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왕의 표상이 나타남

SOURCES



[출처01]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97%98%EB%A6%AC%EC%9E%90%EB%B2%A0%EC%8A%A4_1%EC%84%B8#/media/%ED%8C%8C%EC%9D%BC:Elizabeth1England.jpg

[출처02]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B9%B4%ED%85%8C%EB%A6%AC%EB%82%98_2%EC%84%B8#/media/%ED%8C%8C%EC%9D%BC:Catherine_II_by_J.B.Lampi_\(1780s,_Kunsthistorisches_Museum\).jpg](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B9%B4%ED%85%8C%EB%A6%AC%EB%82%98_2%EC%84%B8#/media/%ED%8C%8C%EC%9D%BC:Catherine_II_by_J.B.Lampi_(1780s,_Kunsthistorisches_Museum).jpg)

[출처03]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83%9C%ED%9B%84#/media/%ED%8C%8C%EC%9D%BC:The_Ci-Xi_Imperial_Dowager_Empress_\(5\).JPG](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83%9C%ED%9B%84#/media/%ED%8C%8C%EC%9D%BC:The_Ci-Xi_Imperial_Dowager_Empress_(5).JPG)

[출처04] namuwiki
<https://namu.wiki/w/%EB%82%98%EB%A5%B4%EB%A9%94%EB%A5%B4>

[출처05] Wikipedia
https://ar.wikipedia.org/wiki/%D8%B3%D9%84%D8%B7%D8%A7%D9%86#/media/%D9%85%D9%84%D9%81:Gentile_Bellini_003.jpg

SOURCES



[출처06] © 소전형

[출처07] Wikipedia
https://www.wikiwand.com/en/Liuthar_Gospels

[출처08] Wikim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l_Greco_001.jpg

[출처09]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questrian_Portrait_of_Philip_IV#/media/File:Diego_Vel%C3%A1zquez_053.jpg

[출처10] Wikim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hilippe_V_Ranc.jpg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

- 도입
-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해 질문하기
- 조선의 특징과 왕과 왕비

02.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1)
: 왕과 관련된 어휘

- 왕과 관련된 어휘들
- 왕에 관한 어휘

03.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2)
: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

-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
- 대통령과 왕의 비교
- 서양 정치체제의 분류와 동양의 군주정

04.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1)

- 전제군주와 여성군주
- 기독교 국가의 군주와 공동체
- 계몽군주가 묘사되는 방식

05.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4)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2)

- 중국 황제의 그림
- 일본 천황과 쇼군의 모습
- 조선의 왕들, 그리고 동아시아 군주제의 지향점

1주차 | 왕이란 무엇인가?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4) :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2)

1주차 | 학습목표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학습목차

학습목표

- 동양 왕들을 그린 그림이 서양 왕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동양 내에서 왕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상해본다.

학습내용

- 중국 황제의 그림
- 일본 천황과 쇼군의 모습
- 조선의 왕들, 그리고 동아시아 군주제의 지향점



중국 황제의 그림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동양 군주의 그림 특징

- 서양에 비해 소박하게 그려짐
- 신과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중국 황제 그림의 특징

- 중국 황제는 일반인보다 크게 그려짐
- 복식을 통해 왕을 이해할 수 있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수나라와 당나라의 황제



|(좌) 수문제
|(우) 당태종

[출처01] Wikipedia
[출처02]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 수문제

[출처01]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 당태종

[출처02]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송나라 황제와 황후



[출처03] Wikipedia



| (좌) 송인종

| (우) 자성광현황후

[출처04]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원나라 황제와 황후



[출처05] Wikipedia



[출처06] Wikipedia

| (좌) 원 무종

| (우) 무명의 황후와 진가 황후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명나라 황제와 황후



[출처07] Wikipedia

| (좌) 효자고황후

| (우) 명 태조 고황제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청나라 황제와 황후



[출처08] Wikipedia
[출처09] Wikipedia

건륭제

효현순 황후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청 왕조

- 만주족 문화 + 한족 문화
-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라는 점을 강조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독서하는 황제들



[출처10] Wikipedia
[출처11] Wikipedia
[출처12] Wikipedia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군인으로서의 군주들



[출처13] Wikipedia
[출처14] Wikipedia
[출처15] Wikipedia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일본 천황과 쇼군의 모습

일본의 '천황'

- 메이지 시대 이전, 일본 천황
→ 상징적 군주, 실제 권력이 없음

일본의 군주



|(좌) 나카미카도 천황
|(우) 도쿠가와 츠나요시 쇼군

[출처16] Wikipedia
[출처17] Wikipedia

일본의 군주와 비



|(좌) 고미즈노오 천황
|(우) 도쿠가와 마사코 중궁

[출처18] Wikipedia
[출처19] Wikipedia

조선의 왕들, 그리고 동아시아 군주제의 지향점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조선과 대한제국의 군주



태조



영조



고종

[출처20] Wikipedia
[출처21] Wikipedia
[출처22] Wikipedia

서양 군주 그림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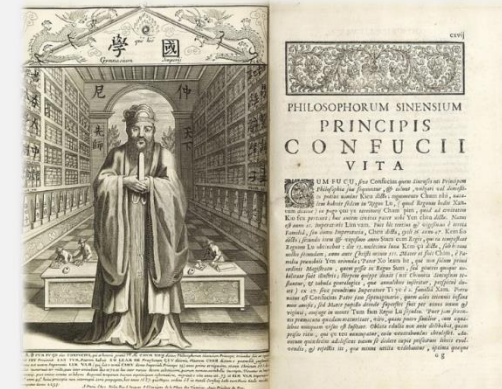
- 정치적 지향, 이념, 종교적 의미 등
복잡한 상징이 군주를 묘사함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조선의 왕은 무엇을 대표하고 표상하는 존재였을까?



예수회 선교사 쿠플레가 루이 14세에게 바친 <중국의 철학자 공자>

[출처23] Wikipedia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마무리

- 유교: 동아시아의 정치이념
- → 18, 19세기 전제군주정으로 비판을 받음

1주차 왕이란 무엇인가? | 5차시 '왕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3): 동양과 서양의 왕정 비교



마무리

- 군주제의 의미
- 동아시아 왕과 왕비의 묘사, 서양과의 차이점

SOURCES



[출처01]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mperor_Taizong_of_Tang#/media/File:Sui_Yangdi_Tang.jpg

[출처02]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mperor_Taizong_of_Tang#/media/File:TangTaizong.jpg

[출처03]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B%B6%81%EC%86%A1_%EC%9D%B8%EC%A2%85#/media/%ED%8C%8C%EC%9D%BC:Song_Renzong.jpg

[출처04] Wikipedia
[https://zh.wikipedia.org/wiki/%E6%85%88%E5%9C%A3%E5%85%89%E7%8C%AE%E7%9A%87%E5%90%8E#/media/File:Empress_of_Renzong_of_Song_\(1\).jpg](https://zh.wikipedia.org/wiki/%E6%85%88%E5%9C%A3%E5%85%89%E7%8C%AE%E7%9A%87%E5%90%8E#/media/File:Empress_of_Renzong_of_Song_(1).jpg)

[출처05]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C3%BCl%C3%BCg_Khan#/media/File:YuanEmperorAlbumQaishanKulugPortrait.jpg

[출처06]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C3%BCl%C3%BCg_Khan#/media/File:YuanEmpressAlbumTwoWivesOfQaishan.jpg

SOURCES



[출처07] Wikipedia
<https://theme.npm.edu.tw/exh110/FacetsofAuthority/en/page-5.html#lg=1&slide=0>

[출처08]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4%B9%BE%E9%9A%86%E5%B8%9D#/media/%E3%83%95%E3%82%A1%E3%82%A4%E3%83%AB:%E6%B8%85_%E9%83%8E%E4%B8%96%E5%AE%81%E7%BB%98%E3%80%8A%E6%B8%85%E9%AB%98%E5%AE%97%E4%B9%BE%E9%9A%86%E5%B8%9D%E6%9C%9D%E6%9C%8D%E5%83%8F%E3%80%8B.jpg

[출처09] Wikipedia
<https://zh.wikipedia.org/zh-hans/%E5%AD%9D%E8%B3%A2%E7%B4%94%E7%9A%87%E5%90%8E#/media/File:%E3%80%8A%E5%AD%9D%E8%B4%A4%E7%BA%AF%E7%9A%87%E5%90%8E%E6%9C%9D%E6%9C%8D%E5%83%8F%E3%80%8B.jpg>

[출처10]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angxi_Empress#/media/File:Kangxi_Empress.jpg

[출처11]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98%B9%EC%A0%95%EC%A0%9C#/media/%ED%8C%8C%EC%9D%BC:Emperor_Yongzheng.JPG

SOURCES



- [출처12]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Qianlong_Emperor#/media/File:Qianlong11.jpg
- [출처13]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D%9D%AC%EC%A0%9C#/media/%ED%8C%8C%EC%9D%BC:Armoured_Kangxi_Emperor.jpg
- [출처1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Yongzheng_Emperor#/media/File:Album_of_the_Yongzheng_Empereor_in_Costumes_8.jpg
- [출처15]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A%B1%B4%EB%A5%AD%EC%A0%9C#/media/%ED%8C%8C%EC%9D%BC:The_Qianlong_Emperor_in_Ceremonial_Armour_on_Horseback.jpg
- [출처16]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mperor_Nakamikado#/media/File:Emperor_Nakamikado.jpg
- [출처17]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okugawa_Tsunayoshi#/media/File:Tsunyaoshi.jpg

SOURCES



- [출처18]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5%BE%8C%E6%B0%B4%E5%B0%BE%E5%A4%A9%E7%9A%87#/media/%E3%83%95%E3%82%A1%E3%82%A4%E3%83%AB:Emperor_Go-Mizunoo3.jpg
- [출처19]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5%BE%B3%E5%B7%9D%E5%92%8C%E5%AD%90#/media/%E3%83%95%E3%82%A1%E3%82%A4%E3%83%AB:Tokugawa_Masako.jpg
- [출처20]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A1%B0_\(%EC%A1%B0%EC%84%A0\)#/media/%ED%8C%8C%EC%9D%BC:King_Taejo_Yi_02.jpg](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A1%B0_(%EC%A1%B0%EC%84%A0)#/media/%ED%8C%8C%EC%9D%BC:King_Taejo_Yi_02.jpg)
- [출처21]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C%A1%B0#/media/%ED%8C%8C%EC%9D%BC:Portrait_of_King_Yeongjo_-_Chae_Yong_Shin_\(%E8%94%A1%E9%BE%8D%E8%87%A3_1850-1941\)_Cho_Seok-jin_\(%E8%B6%99%E9%8C%AB%E6%99%89_1853-1920\)_et_\(cropped\).jpg](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C%A1%B0#/media/%ED%8C%8C%EC%9D%BC:Portrait_of_King_Yeongjo_-_Chae_Yong_Shin_(%E8%94%A1%E9%BE%8D%E8%87%A3_1850-1941)_Cho_Seok-jin_(%E8%B6%99%E9%8C%AB%E6%99%89_1853-1920)_et_(cropped).jpg)
- [출처22]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A2%85_\(%EB%8C%80%ED%95%9C%EC%A0%9C%EA%B5%AD\)#/media/%ED%8C%8C%EC%9D%BC:Portrait_of_Gjong_01.jpg](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A2%85_(%EB%8C%80%ED%95%9C%EC%A0%9C%EA%B5%AD)#/media/%ED%8C%8C%EC%9D%BC:Portrait_of_Gjong_01.jpg)

SOURCES



- [출처23] Wikip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ifeAndWorksOfConfucius1687.jpg>

REFERENCE



- Woodacre, Elena, Lucinda H.S. Dean, Chris Jones, Russell E. Martin and Zita Eva Rohr eds. 2019. *The Routledge History of Monarc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ntesquieu, Charles de Secondat, Thomas Nugent trans. *The Spirit of Laws*. Kitchener: Batoche Books, 1752/2001.
- 孟德斯鳩 著, 嚴復 譯. <孟德斯鳩法意>. 商務印書館, 1931.
- 孟德斯鳩 著, 何禮之 譯. <萬法精理>. 東京: 何礼之, 1875-1876.
- 아리스토텔레스 지, 김재홍, 강상진, 이창우 역.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길.
- Kantorowicz, Ernst Hartwig. 2016.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ul Kléber Monod. 2001. *The Power of Kings: Monarchy and Religion in Europe, 1589-171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

기타 학습요소

퀴즈

조선시대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정답: ② 아니다.

해설: 조선시대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 왕은 국가와 사회질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왕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왕은 유교이념에 맞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왕은 비판받았고, 유교에 반해 행동하는 왕들의 경우 폐위를 당하기도 했다.

퀴즈

유교국가인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선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중화질서
- ② 유교이념
- ③ 왕정의 특징
- ④ 불교

정답: ④ 불교

해설: 조선은 건국하면서 고려의 불교 문화를 비판하였다. 조선 건국 후에도 불교 문화가 오랫동안 남았고, 왕실에서도 불교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왕과 왕비의 삶의 기준은 유교였다.

퀴즈

군주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고르시오.

- ① 권력 ② 법 ③ 종교 ④ 의례 ⑤ 표상
⑥ 전시 ⑦ 왕조 ⑧ 궁정 ⑨ 왕국

정답: 모두

해설: 군주제 연구자들이 군주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표시한 것입니다. 군주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군주제를 구성하는 아홉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아홉가지 요소는 권력, 법, 종교, 의례(ceremonial), 표상(representation), 전시(display), 왕조, 조정, 왕국(realm)임.

퀴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영국의 조지 3세, 그리고 나폴레옹의 그림을 비교해볼 때 보기 중에서 다른 것보다 대통령과 왕의 차이를 덜 보여주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그림 속의 상징적인 물건들의 유무
- ② 대통령과 왕들의 얼굴 표정
- ③ 대통령과 왕들의 포즈
- ④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유무
- ⑤ 대통령과 왕들의 옷 색깔

정답 ②, ④

해설: 워싱턴의 그림들에 비해 왕들의 그림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또,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게 그려진 워싱턴과 비교해볼 때 왕이나 나폴레옹은 과장된 포즈나 영웅적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채색에 가깝게 채색된 워싱턴의 초상화와 비교해볼 때 왕들과 나폴레옹의 그림에는 다양한 색채와 특히 황제와 관련된 색들이 들어가 있다. 얼굴 표정의 경우 이 수업에서 다룬 그림들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존재의 유무도 대통령과 왕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그려지는가는 대통령과 왕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퀴즈

서양 중세의 기독교 국가의 왕은 누구를 대표하는 존재인가?

- ① 신
- ② 백성
- ③ 자기 자신

정답: ① 신

해설: 서양 중세의 기독교 국가의 왕은 신을 대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해되었다.

퀴즈

중국, 일본, 조선의 왕들의 초상화를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의 왕은 ()을 대리하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았다.

정답: 신

해설: 서양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양과 같은 신, 특히 인격신 개념이 희박했고, 또 신과 왕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거나 이론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

강의 전문(국문)

1

00:00:52,052 --> 00:00:54,320

안녕하세요.

2

00:00:54,320 --> 00:00:59,759

글로벌 한국사 입문 왕과 왕비의 삶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

00:00:59,759 --> 00:01:05,065

저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소진형입니다.

4

00:01:05,065 --> 00:01:16,109

이 강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왕권국가인 조선의 제도와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00:01:16,109 --> 00:01:24,217

이 목표를 위해 이 강의에서 우리는 왕과 왕비의 삶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6

00:01:24,217 --> 00:01:27,220

여러분들은 조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7

00:01:27,220 --> 00:01:37,964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사극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궁정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8

00:01:37,964 --> 00:01:45,305

드라마가 현실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조선시대에 대한 관심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00:01:45,305 --> 00:01:54,814

그 드라마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또 조선의 복식이라든지 건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

00:01:54,814 --> 00:02:05,058

그럼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요. 조선은 14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왕정 국가입니다.

11

00:02:05,058 --> 00:02:14,167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왕조이지요. 이렇게 한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역사상 많지 않습니다.

12

00:02:14,167 --> 00:02:26,513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왕정 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과 왕비의 삶입니다. 조선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

00:02:26,513 --> 00:02:33,520

정치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또 문화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요.

14

00:02:33,520 --> 00:02:43,663

왕과 왕비의 삶은 조선이라는 왕정국가의 특징과 함께 왕정국가의 정치, 문화, 경제를 같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15

00:02:43,663 --> 00:02:55,408

정치의 중심에 바로 왕과 왕비가 있고 또 이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상업 역시 왕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거든요.

16

00:02:55,408 --> 00:03:02,582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삶을 알아보는 것은 조선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7

00:03:05,585 --> 00:03:10,990

그렇다면 조선의 왕과 왕비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18

00:03:10,990 --> 00:03:15,361

여러분은 왕과 왕비의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19

00:03:15,361 --> 00:03:25,138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왕과 왕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합니다.

20

00:03:25,138 --> 00:03:35,949

왕과 왕비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대개 정치적 암투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를 놓고 치열한 권력 투쟁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21

00:03:35,949 --> 00:03:44,123

왕과 왕비는 정치적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궁정에서 화려한 삶을 보낸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22

00:03:44,123 --> 00:03:50,964

아마 조선의 왕과 왕비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3

00:03:50,964 --> 00:04:03,910

이들은 다른 국가의 왕과 왕비, 황제와 황제비처럼 조선이라는 국가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에 해당되는 권력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24

00:04:03,910 --> 00:04:12,518

가장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겠지요.

25

00:04:12,518 --> 00:04:21,561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동시에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26

00:04:21,561 --> 00:04:34,207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왕과 왕비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폭군 또는 빌런으로 기록되었으니깐요.

27

00:04:34,207 --> 00:04:44,584

따라서 왕과 왕비는 사회가 요구하는 왕과 왕비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역할과 의무를 해야 했습니다.

28

00:04:44,584 --> 00:04:52,659

군주제에서 왕과 왕비가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공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29

00:04:52,659 --> 00:05:00,900

따라서 그들의 삶도 사적인 측면보다는 공적인 측면이 우선 먼저 강조됩니다.

30

00:05:00,900 --> 00:05:08,007

왕과 왕비는 늘 공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1

00:05:08,007 --> 00:05:17,050

왕과 왕비는 사회의 규범과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이상적인 왕과 왕비가 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32

00:05:17,050 --> 00:05:28,728

조선의 왕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국가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관료들을 상대하며 밤늦게까지 공무를 보아야 했습니다.

33

00:05:28,728 --> 00:05:40,573

왕비는 하루 24시간 동안 예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궁궐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일생을 예법과 격식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34

00:05:40,573 --> 00:05:54,854

이들은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제도와 법에 맞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왕과 왕비의 삶이 조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표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5

00:05:54,854 --> 00:06:05,832

왕과 왕비는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좁게는 성리학이 지향하는 좋은 정치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36

00:06:05,832 --> 00:06:16,376

따라서 이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성왕 그리고 상왕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37

00:06:16,376 --> 00:06:25,885

다시 말해서 조선의 왕과 왕비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회적 압박을 크게 받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지요.

38

00:06:28,888 --> 00:06:42,769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특성을 먼저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시간적으로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39

00:06:42,769 --> 00:06:54,447

공간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속에서 한반도라는 공간에 위치했던 군주제의 특성 위에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40

00:06:54,447 --> 00:07:07,393

이를 위해서는 조선의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의 근간이 되는 성리학에서 좋은 왕과 왕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1

00:07:07,393 --> 00:07:21,808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정치 체제와 질서 체제가 만들어졌는지, 왕과 왕비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42

00:07:21,808 --> 00:07:28,548

왕과 왕비의 공적 측면이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은 예를 통해서입니다.

43

00:07:28,548 --> 00:07:39,525

성리학적 정치 체제에서 예는 단순한 예의 범절을 넘어서 규범과 도덕을 실천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44

00:07:39,525 --> 00:07:50,203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함께 논의할 때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45

00:07:50,203 --> 00:07:59,612

조선의 군주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왕과 왕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46

00:07:59,612 --> 00:08:15,261

하나는 조선의 왕과 왕비는 모든 군주제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왕과 왕비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조선이라는 시공간의 특수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47

00:08:15,261 --> 00:08:21,567

군주제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여지는 제도입니다.

48

00:08:21,567 --> 00:08:29,775

다시 말해서 군주를 내세워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

00:08:29,775 --> 00:08:41,053

그러나 그 군주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지향을 갖는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50

00:08:41,053 --> 00:08:48,427

이번 차시에서는 왕과 왕비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51

00:08:48,427 --> 00:09:01,641

그리고 조선의 왕과 왕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군주제의 속성과 조선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52

00:09:01,641 --> 00:09:08,748

조선의 왕과 왕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왕과 왕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53

00:09:08,748 --> 00:09:24,330

하지만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선만의 왕과 왕비가 갖는 특징을 잘 알 수 없습니다.

1

00:00:20,020 --> 00:00:23,790

안녕하세요.

2

00:00:23,790 --> 00:00:29,896

글로벌 한국사 인문 왕과 왕비의 삶 수업의 1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00:00:29,896 --> 00:00:34,267

지난 영상에서는 이번 수업 전체를 소개하였습니다.

4

00:00:34,267 --> 00:00:49,883

시간적으로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공간적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왕비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유의하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5

00:00:49,883 --> 00:00:59,459

이번 차시에는 왕과 왕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왕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00:00:59,459 --> 00:01:14,741

이를 통해 일반적인 군주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같은 군주제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군주제의 특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7

00:01:14,741 --> 00:01:19,879

그렇다면 왕과 관련된 어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8

00:01:19,879 --> 00:01:27,687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에 접근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9

00:01:27,687 --> 00:01:36,663

하나는 왕과 관련된 어휘를 통해 군주제 혹은 왕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0

00:01:36,663 --> 00:01:43,036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정이 민주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1

00:01:43,036 --> 00:01:49,976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과 서양의 왕정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12

00:01:49,976 --> 00:02:05,091

왕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는 것은 군주의 일반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상에 얼마나 다양한 군주제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00:02:05,091 --> 00:02:18,905

이는 우리가 조선의 왕과 왕비에 접근할 때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이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특수한 사례로 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14

00:02:18,905 --> 00:02:29,582

두 번째 왕정과 민주정의 비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군주제 사회와 겹쳐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5

00:02:29,582 --> 00:02:50,270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치 수장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표이고 왕은 세습의 규칙 혹은 왕위 계승 제도에 의해 그 자리에 오른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갖습니다.

16

00:02:50,270 --> 00:03:03,383

군주제의 제도와 규범이 현대 사회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때 왕과 왕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인지가 좀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17

00:03:03,383 --> 00:03:15,762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왕정 비교는 동양 특히 조선의 정치적 지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

00:03:15,762 --> 00:03:32,078

우리는 그림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군주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서양의 군주에 대한 묘사들은 해당 정치 체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19

00:03:35,081 --> 00:03:46,893

이를 동양의 군주 초상화 등과 비교해서 동양이 전제하는 세계와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20

00:03:46,893 --> 00:03:51,331

이제 왕에 관한 어휘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21

00:03:51,331 --> 00:03:57,303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을 떠올리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22

00:03:57,303 --> 00:04:05,445

왕에 관한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 이 벤다이어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23

00:04:05,445 --> 00:04:15,421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왕과 관련된 어휘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4

00:04:15,421 --> 00:04:22,929

이 벤다이어그램은 군주제 연구자들이 군주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표시한 것입니다.

25

00:04:22,929 --> 00:04:31,337

군주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군주제를 구성하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6

00:04:31,337 --> 00:04:46,019

이 9가지 요소들은 권력, 법, 종교, 의례, 표상, 전시, 왕조, 조정, 왕국입니다.

27

00:04:46,019 --> 00:04:55,795

권력, 법, 종교는 군주의 역할을 규정하는 통치의 근본적인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28

00:04:55,795 --> 00:05:02,502

군주제는 왕조, 궁정 그리고 왕국 안에서 기능하는 체제입니다.

29

00:05:02,502 --> 00:05:08,341

의례, 표상 표상은 대표, 대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0

00:05:08,341 --> 00:05:19,952

의례, 표상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나 신 혹은 백성을 대리한다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31

00:05:19,952 --> 00:05:35,501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통치자는 왕조, 조정 그리고 왕국을 권력, 법, 종교로 다스리는 자신들의 역할을 주장하거나 확고히 합니다.

32

00:05:35,501 --> 00:05:39,105

조선의 왕 역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33

00:05:39,105 --> 00:05:49,449

다만 권력과 법, 왕조와 궁정 혹은 조정, 왕국이 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34

00:05:49,449 --> 00:06:00,893

조선의 왕과 종교, 의례, 표상, 전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35

00:06:00,893 --> 00:06:17,343

일단 의례, 표상, 전시가 왕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조선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의례를 집행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36

00:06:17,343 --> 00:06:28,721

왕의 행차, 의례의 집전 등은 왕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

00:06:28,721 --> 00:06:32,792

종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8

00:06:32,792 --> 00:06:43,136

그 이유는 조선의 이념 체계인 유교가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종교적 색채가 짙지 않기 때문입니다.

39

00:06:43,136 --> 00:06:58,985

그렇지만 왕은 유교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유교를 수호하고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 요소들로 조선의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

00:06:58,985 --> 00:07:08,127

왕과 관련된 어휘들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군주제가 하나의 정치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1

00:07:08,127 --> 00:07:23,976

전제군주제, 봉건제,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 제국 형태의 통치 체제 하에 황제와 왕, 상징적 군주제 등 다양한 군주제의 형태가 말해주듯이

42

00:07:23,976 --> 00:07:34,020

말해주듯이 사회질서의 정점으로서 군주가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외에는 차이가 있는 제도가 군주제이기도 합니다.

43

00:07:34,020 --> 00:07:46,766

전제군주나 절대군주처럼 법을 초월하는 왕의 강한 권력이나 왕의 법을 왕국 전체에 강제할 수 있는 강한 왕을 지향하는 군주제도 있지만

44

00:07:46,766 --> 00:07:53,372

입헌군주제처럼 정치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명목상의 군주제도 존재합니다.

45

00:07:53,372 --> 00:08:06,786

앞서 언급했듯이 왕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이며 지구상에 많은 곳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46

00:08:06,786 --> 00:08:17,129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황제, 왕 등으로 불렸고 일본은 상징적 군주는 텐노, 정치적 수장은 쇼군,

47

00:08:17,129 --> 00:08:33,379

폴리네시아는 아리키, 말레이시아는 양디 페르투암, 잉카는 사푸, 서아시아는 오바, 무슬림은 파디샤, 칼리프, 술탄,

48

00:08:33,379 --> 00:08:48,027

영어로는 킹, 모나크, 프린스 또 칸이나 파라오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의 군주와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체제가 존재했습니다.

49

00:08:48,027 --> 00:09:06,078

이번 차시에서는 왕과 관련된 어휘들인 권력, 법, 종교, 의례, 표상, 전시, 왕조, 조정, 왕국을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분류하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50

00:09:06,078 --> 00:09:13,553

군주제 국가들의 공통된 요소들은 바로 이 9가지 어휘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1

00:09:13,553 --> 00:09:21,994

또 군주제라는 명칭으로 묶이지만 전제군주제, 봉건제,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

52

00:09:21,994 --> 00:09:33,406

제국 형태의 통치 체제 하에 황제와 왕, 상징적 군주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군주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1

00:00:20,020 --> 00:00:23,023

안녕하세요.

2

00:00:23,023 --> 00:00:29,662

글로벌 한국사 인문 왕과 왕비의 삶 수업의 1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00:00:29,662 --> 00:00:40,006

지난 영상에서는 왕과 왕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왕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4

00:00:40,006 --> 00:00:45,612

이번 차시에서는 왕정과 민주정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5

00:00:45,612 --> 00:00:58,091

이를 통해 왕과 민주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왕정의 수장인 왕과 민주정의 수장인 대통령을

6

00:00:58,091 --> 00:01:06,266

동일한 존재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

00:01:06,266 --> 00:01:16,676

우리는 많은 경우 왕과 대통령 혹은 수상을 동일한 역할과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8

00:01:16,676 --> 00:01:24,250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00:01:24,250 --> 00:01:29,556

왕정과 민주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10

00:01:29,556 --> 00:01:36,429

간략하게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11

00:01:36,429 --> 00:01:42,068

민주정과 왕정의 가장 큰 차이는 주권의 소재입니다.

12

00:01:42,068 --> 00:01:58,318

주권이 왕에게 있는 왕정과 달리 민주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 투표를 통해 주권을 자신들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 수상에게 위임합니다.

13

00:01:58,318 --> 00:02:16,736

또 민주정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눔으로써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해서 한쪽의 권력이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권력 분립을 제도적으로 구현합니다.

14

00:02:16,736 --> 00:02:31,684

군주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이 왕에게 모두 있다는 점에서 왕의 권한 자체가 민주정의 수장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00:02:31,684 --> 00:02:44,831

민주정에서는 투표를 통해 정치 수장이 선출되는 데 반해 군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습이 왕권의 정당성의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16

00:02:44,831 --> 00:02:58,811

왕위 계승 후보가 세습의 규칙에서 벗어날 경우 종교나 의례,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후보의 자격을 합법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17

00:02:58,811 --> 00:03:06,786

민주정에서 정치 수장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의 대표입니다.

18

00:03:06,786 --> 00:03:10,490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19

00:03:10,490 --> 00:03:23,436

다시 말해 정치 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게 되며 또 국민의 지지를 통해 국가를 통치합니다.

20

00:03:23,436 --> 00:03:27,674

반면 군주정의 군주는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21

00:03:27,674 --> 00:03:36,816

예를 들어 기독교나 이슬람, 불교 국가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이거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22

00:03:36,816 --> 00:03:47,694

통치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대표이자 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적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23

00:03:47,694 --> 00:03:58,338

마지막으로 민주정과 군주정의 정치 수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정치 수장과의 관계입니다.

24

00:03:58,338 --> 00:04:04,043

민주정에서 대통령은 법의 수호자라고 보통 규정됩니다.

25

00:04:04,043 --> 00:04:14,921

그의 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6

00:04:14,921 --> 00:04:22,962

그러나 군주정에서 왕은 법을 제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 위에 존재합니다.

27

00:04:22,962 --> 00:04:29,168

이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28

00:04:29,168 --> 00:04:44,851

동아시아의 경우 군주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초법적인 존재로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군주가 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해 신하들의 반발이 상당한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

00:04:44,851 --> 00:04:57,997

정리하자면 군주정에서 군주는 기본적으로 법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나 현실적으로는 법의 수호자의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

00:05:01,000 --> 00:05:07,640

이제 대통령과 군주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 생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1

00:05:07,640 --> 00:05:20,486

19세기에 그려진 대통령과 왕의 그림들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그림의 묘사들이나 디테일이 어떻게 다른지 잘 살펴보세요.

32

00:05:20,486 --> 00:05:29,696

이 그림은 조지 워싱턴 그리고 조지 3세, 루이 16세의 그림들입니다.

33

00:05:29,696 --> 00:05:42,041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지 워싱턴의 경우에는 19세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고요, 조지 3세는 같은 시기에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34

00:05:42,041 --> 00:05:48,448

루이 16세 역시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왕이었습니다.

35

00:05:48,448 --> 00:05:59,258

그렇다면 민주정의 정치 수장인 대통령과 군주들은 각기 어떻게 묘사되었을까요.

36

00:05:59,258 --> 00:06:07,567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그가 대통령이었던 시점에 유럽의 군주들이었던

37

00:06:07,567 --> 00:06:17,009

영국의 조지 3세, 루이 16세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

00:06:17,009 --> 00:06:23,449

조지 워싱턴의 그림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그려진 것입니다.

39

00:06:23,449 --> 00:06:30,056

보시면 옷도 특별한 장식이 없고 배경도 없이 그려져 있죠.

40

00:06:30,056 --> 00:06:42,001

조지 3세와 루이 16세의 경우 의장도 복잡하고 화려하지만 뒤의 배경이나 왕의 상징물 레갈리아라고 하는데요.

41

00:06:42,001 --> 00:06:50,042

이런 네갈리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배치되고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

00:06:50,042 --> 00:07:01,087

이 시기가 되면 중세나 16, 17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왕의 정치적 위상에 기독교적 속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43

00:07:01,087 --> 00:07:12,965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나중에 16, 17세기 이전에 기독교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왕을 어떻게 그려주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44

00:07:12,965 --> 00:07:24,811

이 시기가 되면 중세나 16, 17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왕의 정치적 위상에 기독교적 속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45

00:07:24,811 --> 00:07:43,863

조지 3세와 루이 16세의 그림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치 수장 즉 조지 워싱턴과는 비교되는 복잡한 의례와 궁정사회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46

00:07:43,863 --> 00:07:56,275

이 그림은 농부와 같이 있는 워싱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47

00:07:56,275 --> 00:08:08,721

이 그림들은 워싱턴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혹은 워싱턴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시키고 싶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48

00:08:08,721 --> 00:08:23,169

검은 옷을 입은 워싱턴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49

00:08:23,169 --> 00:08:34,413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일부로 삶을 살아가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리더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50

00:08:34,413 --> 00:08:37,984

이 그림은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이죠.

51

00:08:37,984 --> 00:08:42,455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이죠.

52

00:08:42,455 --> 00:08:51,197

워싱턴의 그림을 나폴레옹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3

00:08:51,197 --> 00:09:04,777

알프스를 넘고 있는 나폴레옹은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며 야생적인 말을 잘 다루는 지도자로 그려집니다.

54

00:09:04,777 --> 00:09:13,185

그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고 다른 군인이나 일반인들이 그림에서 배제되어 있지요.

55

00:09:13,185 --> 00:09:26,933

이렇게 보면 조지 워싱턴과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이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대통령과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56

00:09:29,936 --> 00:09:42,415

그렇다면 동양의 군주정은 서양의 군주정보다 더 민주정과 대비되는 어떤 것이라고 상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7

00:09:42,415 --> 00:09:54,927

적어도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분류 체계에서 여기에서 분류체계란 정치 체제의 분류 체계입니다.

58

00:09:54,927 --> 00:10:07,506

동양의 정치 체제는 군주정과 전제정 혹은 군주정과 폭군정 사이의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59

00:10:07,506 --> 00:10:14,513

이 표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부의 6가지 형태입니다.

60

00:10:14,513 --> 00:10:21,887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분류를 가지고 동양의 정치 체제를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61

00:10:21,887 --> 00:10:34,800

그러나 이 분류 체제는 이후 정치학자들이 동양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62

00:10:34,800 --> 00:10:45,911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부를 권력을 갖는 사람의 수에 따라 1인이면 군주정,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63

00:10:45,911 --> 00:10:52,051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귀족정, 아리스토 크라티아.

64

00:10:52,051 --> 00:11:02,695

모든 시민들이 번갈아가면서 권력을 행사하면 금권정 혹은 제한정으로 우선 나누었습니다.

65

00:11:02,695 --> 00:11:07,700

이 체제들이 타락하면 나쁜 정치 체제가 되는데요.

66

00:11:07,700 --> 00:11:13,072

군주정이 타락하면 참주정, 티라니스.

67

00:11:13,072 --> 00:11:20,579

귀족정이 타락하면 과두정, 올리가키아, 금권정이라고도 부릅니다.

68

00:11:20,579 --> 00:11:29,555

혹은 제헌정이 타락하면 민주정, 데모크라티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69

00:11:29,555 --> 00:11:45,805

이 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민주정은 현대 국가의 일반적인 모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타락한 정체 중 하나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70

00:11:45,805 --> 00:12:00,820

여기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19세기 중엽까지 민주주의, 민주정은 유럽에서조차 좋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71

00:12:00,820 --> 00:12:08,494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섯 정부 중 가장 좋은 체제를 군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2

00:12:08,494 --> 00:12:13,365

그리고 가장 나쁜 체제를 참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73

00:12:13,365 --> 00:12:22,942

민주정은 나쁜 세 가지의 체제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체제라고 평가되었습니다.

74

00:12:22,942 --> 00:12:36,055

다시 왕정으로 돌아오면 동양의 정치 체제는 군주정이니까 이 분류에 따르면 군주정 혹은 폭군정이 됩니다.

75

00:12:36,055 --> 00:12:54,573

좋은 왕이 통치를 하면 최선의 정치 체제가 되는 것이고 왕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참주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분류는 사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6

00:12:54,573 --> 00:13:07,219

동양에서 소수나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왕에 대해서는 좋은 왕과 폭군을 구별하지요.

77

00:13:07,219 --> 00:13:16,929

여기에서 폭군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78

00:13:16,929 --> 00:13:29,074

동양은 세습 군주제 안에서 어떻게 좋은 통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따라서 국가를 통일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왕을 인정하면서도

79

00:13:29,074 --> 00:13:35,281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80

00:13:35,281 --> 00:13:41,68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

00:13:41,687 --> 00:13:50,196

다음 표는 몽테스키외가 나눈 네 가지 정부 형태입니다.

82

00:13:50,196 --> 00:14:01,740

그는 공화정 하에 민주정과 귀족정이 있다고 보았고 군주정과 전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83

00:14:01,740 --> 00:14:21,927

그런데 몽테스키외가 살았던 18세기 유럽에는 그 당시에 동아시아로 선교를 갔었던 천주교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84

00:14:21,927 --> 00:14:35,541

그 정보들 중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보들이 많았고요, 중국과 일본이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었습니다.

85

00:14:35,541 --> 00:14:50,856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원래 17세기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18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전제정이라고 규정이 되면서 낮게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86

00:14:50,856 --> 00:14:55,794

몽테스키외도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87

00:14:55,794 --> 00:15:07,072

몽테스키외는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정부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일종의 기후 결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8

00:15:07,072 --> 00:15:26,091

그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라는 어떤 특정한 기후와 어떤 영역에 존재하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따라서 전제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규정되었습니다.

89

00:15:26,091 --> 00:15:34,600

이런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19세기,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90

00:15:34,600 --> 00:15:45,511

그리고 이때 법의 정신을 번역했었던 일본과 중국의 번역자들은 몽테스키외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91

00:15:45,511 --> 00:16:02,861

그래서 그가 중국과 일본의 정치 체제를 전제정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100년 전의 정보를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92

00:16:02,861 --> 00:16:16,075

유럽에서 보고 있었던 동아시아, 전제정이라고 봤었던 그 동아시아와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정치체제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93

00:16:16,075 --> 00:16:25,084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군주들 그리고 조선의 군주들은 어떤 군주였을까요.

94

00:16:25,084 --> 00:16:39,398

이번 차시에서는 대통령과 왕의 차이 그리고 정치의 구분에서 동양의 군주제는 어떻게 분류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95

00:16:39,398 --> 00:16:58,017

조지 워싱턴과 조지 3세, 루이 16세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군주제의 수장인 왕은 그들이 표상하는 정치 질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6

00:16:58,017 --> 00:17:08,293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본 서양의 정치 체제의 분류에서 보면 동양의 정치 체제는 당연히 군주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

00:17:08,293 --> 00:17:16,70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체제 구분에서 왕정과 참주제의 구분은 동양에서도 유사한 분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98

00:17:16,702 --> 00:17:33,052

그러나 몽테스키외가 정치 체제를 분류하면서 기후와 풍습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을 전제정으로 분류한 것은 법의 정신을 읽는 동아시아인들을 비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

00:00:20,020 --> 00:00:23,089

안녕하세요.

2

00:00:23,089 --> 00:00:29,396

글로벌 한국사 인문 왕과 왕비의 삶 수업의 1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00:00:29,396 --> 00:00:33,700

지난 영상에서는 왕정과 민주정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4

00:00:33,700 --> 00:00:42,342

이번 차시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왕정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00:00:42,342 --> 00:00:50,383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이 생각하는 왕이 어떻게 다른지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00:00:50,383 --> 00:00:58,892

먼저 다양한 형태의 왕들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일탈적인 군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7

00:00:58,892 --> 00:01:05,932

전제군주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군주를 말하는 것이겠죠.

8

00:01:05,932 --> 00:01:21,147

몽테스키외에게 전제군주는 입헌군주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군주제에서 일탈적인 군주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9

00:01:21,147 --> 00:01:27,153

하나는 전제군주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군주입니다.

10

00:01:27,153 --> 00:01:35,628

전제군주는 민주정의 반대라기보다는 입헌군주의 대립 개념처럼 사용됩니다.

11

00:01:35,628 --> 00:01:43,803

그러니까 이 개념은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성립한 개념입니다.

12

00:01:43,803 --> 00:02:00,520

당시 이상적인 국가는 입헌군주정 즉 왕이 법을 초월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법에서 규정된 범주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13

00:02:00,520 --> 00:02:14,067

여성 군주는 남성 후계자가 없는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데요.

14

00:02:14,067 --> 00:02:31,651

기본적으로 군주제는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일탈적 존재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대표적인 전제군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00:02:31,651 --> 00:02:41,694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의 군주제가 전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16

00:02:41,694 --> 00:02:52,505

그것은 19세기 말 서양의 정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17

00:02:52,505 --> 00:03:05,652

그 이유는 동아시아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를 민주정으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중요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8

00:03:05,652 --> 00:03:20,900

그렇다면 동아시아인들이 19세기 이후부터 서양에서 입헌군주제의 반대로 규정하는 전제군주란 어떤 왕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9

00:03:20,900 --> 00:03:37,116

통치자가 법률이나 반대 세력의 의견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무제약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이런 국가를 우리는 전제정이라고 말합니다.

20

00:03:37,116 --> 00:03:43,790

그런데 군주제를 이렇게만 규정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1

00:03:43,790 --> 00:03:55,501

왜냐하면 유럽의 근세 특히 18세기 유럽 정치 사상과 관련된 저술에서 정치 형태를 설명할 때

22

00:03:55,501 --> 00:04:06,346

전제군주제는 입헌군주제와 대비되어 설명되거나 19세기 공화정, 민주정과 군주제를 대비시켜 설명할 때

23

00:04:06,346 --> 00:04:12,685

군주제를 과장되게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4

00:04:12,685 --> 00:04:25,365

군주제를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을 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군주제의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25

00:04:25,365 --> 00:04:34,507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파라오, 술탄 그리고 진시황의 그림들입니다.

26

00:04:34,507 --> 00:04:47,020

역사적으로 전제군주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그림들 즉 이집트의 파라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중국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27

00:04:47,020 --> 00:04:59,432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전제군주라고 얘기할 때는 입헌군주제로 전환하기 이전의 군주제를 전제군주제라고 지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8

00:04:59,432 --> 00:05:11,110

전제군주라는 개념에서 발견되는 아이디어 즉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권력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29

00:05:11,110 --> 00:05:22,522

그런 의미인 동시에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이 국가 전체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

00:05:22,522 --> 00:05:33,866

절대적 권위를 갖고 권력을 행사하는 왕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1

00:05:33,866 --> 00:05:51,617

그렇다면 전제군주제란 실제로 군주가 강력한 권력을 독점했다기보다는 군주의 강력한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 체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32

00:05:51,617 --> 00:06:03,996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예카테리나 2세 그리고 서태후의 그림입니다.

33

00:06:03,996 --> 00:06:11,704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탈적인 존재로서의 여성 군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34

00:06:11,704 --> 00:06:26,085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군주제는 가부장적인 제도이며 그 전제는 남성만이 실제로 권력에 접근하고 그 권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

00:06:26,085 --> 00:06:39,098

여성이 군주의 지위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역사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는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사례로 이해됩니다.

36

00:06:39,098 --> 00:06:49,776

예를 들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군주가 되거나 남성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

37

00:06:49,776 --> 00:07:02,855

거의 이때는 남성 계승권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

00:07:02,855 --> 00:07:12,565

여성 군주들은 따라서 남성 군주들과 다른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9

00:07:12,565 --> 00:07:29,282

예를 들어서 남성들 군주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왜 여성이 권력을 쥐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구요.

40

00:07:29,282 --> 00:07:37,356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밑 작업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41

00:07:37,356 --> 00:07:46,365

이렇게 생각해보면 통치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쉽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42

00:07:46,365 --> 00:07:57,043

하지만 통치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권력의 유일한 근원을 군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43

00:07:57,043 --> 00:08:09,755

사회의 통념상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주가 권력의 유일한 근원으로 이론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44

00:08:09,755 --> 00:08:21,601

그러나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는 복잡한 권력 구조에 따라 군주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45

00:08:24,604 --> 00:08:42,989

서양의 왕들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동일한 서양 국가들이지만 국가의 질서, 정치의 의미, 공동체의 지향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

00:08:42,989 --> 00:08:57,537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우리가 소위 중세라고 알고 있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전의 서양 국가들이 그렸었던 왕의 모습들과

47

00:08:57,537 --> 00:09:09,448

그 이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그려진 왕의 모습들을 비교해보면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48

00:09:09,448 --> 00:09:18,257

중세의 경우에는 왕들이 기독교적으로 묘사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49

00:09:18,257 --> 00:09:33,105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 개의 그림은 오토 3세를 그린 그림과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경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50

00:09:33,105 --> 00:09:47,920

이 그림들을 이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할 동아시아나 조선의 군주들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와 유럽이 동일한 군주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1

00:09:47,920 --> 00:09:57,897

두 지역의 군주제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다른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00:09:57,897 --> 00:10:11,010

또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유럽의 군주제도 시기에 따라서 계속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00:10:11,010 --> 00:10:28,995

오토 3세에 대한 그림은요, 이 오토 3세는 누구인가 하면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이탈리아의 국왕 그리고 독일의 국왕이었던 사람입니다.

54

00:10:28,995 --> 00:10:39,338

이 그림에서 오토 3세는 약간 긴 왕자 위에 말려있는 형태의 쿠션 위에 앉아 있습니다.

55

00:10:39,338 --> 00:10:50,549

왕자와 왕을 같이 그리는 것은 카롤링거 왕조 이후부터 서양에서 국가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56

00:10:50,549 --> 00:11:03,095

그런데 여기에서 오토 3세와 왕좌는 또 아몬드 모양의 후배광에 둘러싸여 바닥이 아닌 공기 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7

00:11:03,095 --> 00:11:15,574

그리고 그림의 위쪽에서 신의 손이 나와서 오토 3세의 머리 위의 왕관을 만지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58

00:11:15,574 --> 00:11:20,846

왕의 머리는 둥근 후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59

00:11:20,846 --> 00:11:31,390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왕의 머리가 하얀색 천에 의해 몸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60

00:11:31,390 --> 00:11:44,336

이 외에도 이 그림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오토 3세는 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으로 묘사되었고

61

00:11:44,336 --> 00:11:54,780

그의 권위 역시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00:11:54,780 --> 00:12:00,019

다음 그림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경배입니다.

63

00:12:00,019 --> 00:12:14,266

이 그림은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 엘 그레코가 16세기 후반에 그린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경배입니다.

64

00:12:14,266 --> 00:12:24,009

이 그림은 기독교 국가에서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

00:12:24,009 --> 00:12:32,752

이 그림의 가운데에는 스페인의 왕 펠레페 2세가 검은색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66

00:12:32,752 --> 00:12:44,697

그의 뒤에는 연옥이 상어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67

00:12:44,697 --> 00:12:57,676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왕의 머리 위로는 예수를 의미하는 ihs라고 하는 글자가 십자가와 함께 떠 있습니다.

68

00:12:57,676 --> 00:13:09,054

펠레페 2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9

00:13:09,054 --> 00:13:21,667

기독교에서는 정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는 존재로서의 왕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00:13:21,667 --> 00:13:34,446

불과 이 그림이 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려지는 17, 18세기의 유럽 왕들은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71

00:13:37,449 --> 00:13:50,062

17, 18세기의 유럽의 왕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처럼 말을 탄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2

00:13:50,062 --> 00:13:54,567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죠.

73

00:13:54,567 --> 00:13:59,605

벨라스케즈가 그린 스페인의 왕 펠레페 4세입니다.

74

00:13:59,605 --> 00:14:09,481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말의 앞다리가 들려있죠, 굉장히 뭔가 흥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75

00:14:09,481 --> 00:14:22,428

펠레페 4세는 갑옷을 입고 그런 포악한 말을 완벽하게 장악한 듯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76

00:14:22,428 --> 00:14:27,433

그다음 그림은 펠레페 5세의 그림입니다.

77

00:14:27,433 --> 00:14:38,177

첫 번째 그림에 나타난 말을 탄 왕의 의미는 두 번째 그림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8

00:14:38,177 --> 00:14:48,888

두 번째 그림은 왕이 얼마나 말과 같은 동물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79

00:14:48,888 --> 00:14:59,198

말을 잘 다루는 왕의 능력은 바로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의 상징입니다.

80

00:14:59,198 --> 00:15:11,577

다시 말해서 이 두 그림은 모두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됩니다.

81

00:15:11,577 --> 00:15:26,025

이러한 말을 탄 왕의 그림이나 조각들은 이 시기 이후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미술 작품들에서 광범위하게 보입니다.

82

00:15:26,025 --> 00:15:35,334

말을 탄 왕에서 말은 자연을, 왕은 이성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3

00:15:35,334 --> 00:15:45,811

그러니까 말을 탄 왕은 이성적 능력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84

00:15:45,811 --> 00:16:01,460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기독교적 관점의 왕의 의미와는 다른 종류의 왕권 그리고 국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5

00:16:01,460 --> 00:16:10,636

이번 차시에서는 서양의 다양한 왕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6

00:16:10,636 --> 00:16:22,448

서양의 경우도 시대에 따라 국가의 이념 체계에 따라 왕이 다르게 묘사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87

00:16:22,448 --> 00:16:38,664

국가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인지, 그중에서도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국교회인지, 정교회인지에 따라 왕의 표상은 다르게 묘사되겠지요.

88

00:16:38,664 --> 00:16:51,477

그리고 점차 국가 공동체의 목적이 종교적 구원이 아니게 되면서 왕들은 이전과 다르게 표현됩니다.

89

00:16:51,477 --> 00:16:59,718

그렇다면 동양의 왕들은 어떻게 묘사되었을까요?

1

00:00:20,020 --> 00:00:22,689

안녕하세요.

2

00:00:22,689 --> 00:00:29,729

글로벌 한국사 인문 왕과 왕비의 삶 수업 1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00:00:29,729 --> 00:00:36,536

지난 영상에서는 서양 군주제의 특징과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4

00:00:36,536 --> 00:00:45,045

이번 차시 영상에서는 동아시아 군주와 그의 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

00:00:45,045 --> 00:00:55,588

동아시아 군주들이 묘사되는 방식을 통해 서양의 군주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6

00:00:55,588 --> 00:01:12,872

서양의 왕들이 정치 체제의 지향점이나 이념 체제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묘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동양의 군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평범하고 소박하게 그려집니다.

7

00:01:12,872 --> 00:01:31,624

대체로 군주들의 초상화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신과 정치 공동체를 이어주는 존재나 공동체를 이끌고 갈 영웅처럼 묘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하나로 그려집니다.

8

00:01:31,624 --> 00:01:45,839

중국 황제들의 경우 동서양 군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경우들도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9

00:01:45,839 --> 00:01:56,316

굳이 차이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려질 경우 일반인들보다 약간 크게 그려집니다.

10

00:01:56,316 --> 00:02:12,065

왕들의 초상화에서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사실 복식입니다. 복식이 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11

00:02:12,065 --> 00:02:17,270

먼저 중국의 황제 그림부터 보고자 합니다.

12

00:02:17,270 --> 00:02:27,547

한국의 경우 왕과 왕비의 그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을 먼저 보고

13

00:02:27,547 --> 00:02:41,628

조선의 왕의 초상화 중에 남아 있는 것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조선과 그 이전 국가에서 왕의 의미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14

00:02:41,628 --> 00:02:48,101

이 그림들은 수문제와 당태종입니다.

15

00:02:48,101 --> 00:02:58,444

보시면 유럽의 군주들이 묘사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6

00:02:58,444 --> 00:03:03,550

먼저 수문제의 경우 곤면을 입고 있습니다.

17

00:03:03,550 --> 00:03:18,831

곤면은 수문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은 천자의 경우 백옥으로 만든 구슬 12류, 12줄을 의미하죠.

18

00:03:18,831 --> 00:03:43,289

황태자와 친왕은 푸른색 구슬인 청주 9줄, 삼공 제우는 청옥주 7줄, 경대부는 흑옥주 5줄, 삼공 이하는 앞에만 구슬들을 드리우는 것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9

00:03:43,289 --> 00:03:54,901

조선의 왕들은 9류 그러니까 9줄로 된 면류관을 쓰는데 앞과 뒤를 다 쓰기 때문에 18줄의 구슬을 늘어뜨렸습니다.

20

00:03:54,901 --> 00:04:04,344

동아시아의 공적 복식에는 등급이 있어서 천자 복식 이하 관료들의 복식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21

00:04:04,344 --> 00:04:10,316

조선의 경우에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9류 면류관을 쓰는 것이죠.

22

00:04:10,316 --> 00:04:15,421

이 그림은 당태종의 그림입니다.

23

00:04:15,421 --> 00:04:22,629

당태종을 보시면 황색 용포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

00:04:22,629 --> 00:04:28,701

한나라 때부터 황색은 지금은 노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25

00:04:28,701 --> 00:04:39,345

황제의 색으로 이해되었고 이후 통상적으로 중국의 황제의 공식 복식은 황색이 되었습니다.

26

00:04:39,345 --> 00:04:46,486

그 이하 제후, 친왕 등은 붉은색을 썼습니다.

27

00:04:46,486 --> 00:04:59,365

조선의 경우 곤룡포가 붉은색인 이유는 조선이 제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8

00:04:59,365 --> 00:05:08,975

이번에는 송나라 인종과 그의 비인 자성 광현 황후의 그림입니다.

29

00:05:08,975 --> 00:05:23,456

자선 광현 황후의 복식이 화려한 문양과 복잡한 장식이 있는 데 반해 송인종의 경우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면복을 입고 있습니다.

30

00:05:23,456 --> 00:05:36,602

송나라는 소박함을 지향해서 복식이 단순하고 다양한 색을 쓰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1

00:05:36,602 --> 00:05:42,442

이 그림은 원나라의 황제와 황후들의 그림입니다.

32

00:05:42,442 --> 00:05:56,189

원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몽골인들이 세운 제국으로 원나라 황제들의 복식은 송나라보다 더 단순하고 소박해 보입니다.

33

00:05:56,189 --> 00:06:09,702

이 그림들은 원무종과 그의 비들인 진가 황후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황후의 그림입니다.

34

00:06:09,702 --> 00:06:19,712

원은 이 이후에는 화려한 왕실 문화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5

00:06:19,712 --> 00:06:29,188

이 그림은 명태조 고향제 즉 주원장과 그의 황후인 효자 고향후입니다.

36

00:06:29,188 --> 00:06:44,604

조선의 복식은 명나라의 것을 본뜬 것이 많은데 지금 명태조가 입고 있는 용포의 형태나 익선관 역시 조선 왕의 복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

00:06:44,604 --> 00:06:49,942

이 그림은 건륭제와 효연순황후입니다.

38

00:06:49,942 --> 00:07:03,322

앞의 명태조와 비교해보면 황제의 색인 황색을 쓰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의상은 만주족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

00:07:03,322 --> 00:07:21,007

조선은 명청 교체 이후 청나라의 복식을 따르지 않고 명나라의 복식을 따랐는데 그 이유는 조선에게 명이 문명의 상징이고 청은 야만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40

00:07:21,007 --> 00:07:34,921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청 왕조는 한편으로는 만주족의 혈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한편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41

00:07:34,921 --> 00:07:53,873

즉 문명의 이름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와 같이 소위 성황을 지향하는 황제들은 자신들이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00:07:53,873 --> 00:08:08,421

이 그림들은 유교의 원리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라는 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림들처럼 보입니다.

43

00:08:08,421 --> 00:08:14,927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뿐만 아니라 무력 역시 과시했습니다.

44

00:08:14,927 --> 00:08:20,266

말을 탄 왕의 그림들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45

00:08:20,266 --> 00:08:29,442

앞에서 18세기 유럽의 군주들을 묘사할 때 말을 탄 모습이 많이 그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6

00:08:29,442 --> 00:08:44,457

동일하게 18세기 중국에서도 말을 탄 황제들이 그려졌는데 그 이유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47

00:08:44,457 --> 00:08:53,799

옹정제의 경우 말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호랑이랑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

00:08:53,799 --> 00:09:01,407

그리고 그가 서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49

00:09:01,407 --> 00:09:13,219

이 그림들이 서양의 말을 탄 군주들의 모습과 다른 점은 말들이 암전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50

00:09:16,088 --> 00:09:22,728

이번에는 일본의 군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51

00:09:22,728 --> 00:09:31,003

메이지 시대 이전에 일본의 천황은 상징적 군주의 대표적 사례로 유명합니다.

52

00:09:31,003 --> 00:09:36,475

권력은 없고 권위만 인정되는 군주지요.

53

00:09:36,475 --> 00:09:41,747

실제 정치 권력은 쇼군이 행사합니다.

54

00:09:41,747 --> 00:09:52,592

그래서 군주에 대한 그림들도 천황과 쇼군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55

00:09:52,592 --> 00:10:08,374

천황의 그림과 쇼군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나카미카도 천황은 문인처럼 그려져 있고 도쿠가와 츠나요시 쇼군은 무인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56

00:10:08,374 --> 00:10:20,519

사실 에도시대라고도 불리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는 일본의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작된 평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7

00:10:20,519 --> 00:10:30,796

따라서 이 시대의 사무라이들은 전사들이라기보다는 관료로 복무하는 사람들이었죠.

58

00:10:30,796 --> 00:10:42,308

쇼군도 장군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천황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무인처럼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9

00:10:42,308 --> 00:10:51,884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본의 천황이나 황후들은 불교의 승려로 출가하기도 합니다.

60

00:10:51,884 --> 00:10:59,659

이 그림은 고미즈노오 천황과 그 비인 도쿠가와 마사코 중궁인데요.

61

00:10:59,659 --> 00:11:06,399

고미즈노오 천황이 불교의 승려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

00:11:09,402 --> 00:11:15,041

드디어 조선의 왕들의 그림으로 넘어왔습니다.

63

00:11:15,041 --> 00:11:26,719

조선을 건국한 왕인 태조, 조선의 21대 국왕인 영조, 그리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입니다.

64

00:11:26,719 --> 00:11:33,426

조선의 왕의 초상화들은 안타깝지만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65

00:11:33,426 --> 00:11:39,765

그 이유는 한국전쟁 때 불타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66

00:11:39,765 --> 00:11:47,239

온전하게 남아있는 초상화는 태조, 영조, 고종의 것입니다.

67

00:11:47,239 --> 00:11:59,552

태조의 경우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때 파란색은 붉은색과 서로 상호 치환되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8

00:11:59,552 --> 00:12:10,663

태조와 영조가 파란색 혹은 붉은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것은 조선이 제국이 아닌 제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69

00:12:10,663 --> 00:12:21,941

반면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의 색인 노란색 비단으로 만든 곤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70

00:12:21,941 --> 00:12:31,016

태조와 영조, 고종이 쓰고 있는 관은 모양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익선관입니다.

71

00:12:31,016 --> 00:12:36,889

앞에서 명나라 태조가 쓰고 있던 관도 익선관입니다.

72

00:12:36,889 --> 00:12:55,007

서양과 동양의 군주를 그린 그림들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서양의 경우 정치적 지향, 이념, 종교적 의미 등 복잡한 상징이 군주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

00:12:55,007 --> 00:13:08,788

그렇다면 그림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동아시아의 군주들 특히 조선의 군주들은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표상하는 존재들일까요.

74

00:13:08,788 --> 00:13:15,361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유교의 군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75

00:13:15,361 --> 00:13:32,378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예수회 선교사였던 쿠플레가 17세기 말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바친 중국의 철학자 공자라는 책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76

00:13:32,378 --> 00:13:43,622

이 책은 논어, 대학, 중용 그리고 주역의 일부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77

00:13:43,622 --> 00:13:59,138

책의 서문에서 그는 동아시아 군주들이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는 학자 군주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78

00:13:59,138 --> 00:14:11,784

그가 만난 동아시아의 군주들이 정말 학자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쿠플레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유교 국가의 군주들은

79

00:14:11,784 --> 00:14:25,364

학자와 관료들을 존중하며 자신도 그들의 일부로 인정할 때 권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80

00:14:25,364 --> 00:14:32,571

지금까지 동아시아 군주들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81

00:14:32,571 --> 00:14:50,256

서양의 왕들과 달리 동아시아의 군주들에게서는 종교적 색채가 거의 없고 이들의 그림만 봐서는 동아시아의 군주로 표상되는 정치 질서나 체제가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82

00:14:50,256 --> 00:14:57,22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의 정치 체제가 지향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83

00:14:57,229 --> 00:15:05,504

동아시아는 2000년 동안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84

00:15:05,504 --> 00:15:15,414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중국으로 선교를 왔었던 천주교 신부들이었습니다.

85

00:15:15,414 --> 00:15:27,626

이들은 중국 황제의 힘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공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그 이유를 유교에서 찾았습니다.

86

00:15:27,626 --> 00:15:35,334

이렇게 동아시아의 좋은 정치 이념으로 소개되었던 유교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비판을 받았고

87

00:15:35,334 --> 00:15:49,248

겸손한 군주의 국가로 알려졌던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18, 19세기의 전제군주정으로 비판받게 되는 변화는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88

00:15:49,248 --> 00:15:59,291

서양 국가들의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89

00:15:59,291 --> 00:16:19,011

오늘은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다루기 이전에 군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왕과 왕비들은 어떻게 묘사되었고 서양의 왕들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간략하게 개괄해 보았습니다.

90

00:16:19,011 --> 00:16:31,090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성군과 폭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과 왕비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무엇이었는지

91

00:16:31,090 --> 00:16:39,131

어떤 의미에서 왕과 왕비가 자연 질서의 재현자로서의 의미를 갖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92

00:16:39,131 --> 00:16:52,378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문명권의 기본 전제들을 파악한 뒤에야 실제 조선의 왕과 왕세자,

93

00:16:52,378 --> 00:17:04,523

왕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